

익산시내관광

남부권







익산시내관광

익산의 근대문화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향기로운 여행!

넓은 거리에 예술이 입혀져 매일 축제가 열리는 핫한 거리로
다시 태어났다. 원불교성지와 춘포역사 역시 익산의
근대문화를 대표하는 여행코스.

익산문화예술의거리

중·매·서 시장

원광대학교·자연식물원

원불교익산성지

북부시장

남부시장

춘포역사



익산시내관광
익산문화
예술의거리

익산문화예술의거리

익산의 인사동을 꿈꾼다





익산 중앙동 영정동.

그래서 그 이름도 익산의 '작은 명동'이라 불리던 곳.
그 익산 젊음의 거리가, 예전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다.

예전의 양복점과 보석점, 미용실과 전파사 등이 있었던 거리는
이제 각종 공예작업실과 화실, 전시공간과 공연장, 문화체험 공간
등이 들어서 예술과 문화의 거리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거리 곳곳 가로등마다 독특한 조형작품들과 공방 전시물 등이
눈길을 끌고 있으며, 특히 주말에 주로 펼쳐지는 거리공연,
전시·공연, 프리마켓 등은 연인이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도심 속에서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찾는다면 강추.
외지에서 KTX를 타고 익산을 찾는다면, 걸어서 10분 거리의
익산문화예술의거리를 추천한다.

작은 명동이라 불렀던 익산의 영정통거리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익산아트센터

익산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소통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문을 연 익산아트센터.

지역대표 문화상품 판매장 아트몰 2개소와 익산문화예술의거리 전시장 3개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창작스튜디오 4개소와 배움터 1개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엄마아빠 손잡고 영정통 가요~~

매주 토요일이면 익산문화예술의거리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멀리 가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 그래서인지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양한 기획공연이...

앗! 차가워~!!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 물총싸움,
물풍선 받기 등으로 신나는 한때를 보냈다면,
치킨에 맥주 한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을 듯.
기획공연, 플래시몹, 이벤트 등이
그때그때 달리 진행되는 만큼, 사전 확인은 필수.



익산시내관광
중·매·서시장

중앙·매일·서동 시장

맛과 멋은 기본, 쏠쏠한 재미는 덤!!





중앙시장

📍 익산시 중앙로3길 27

☎ 063-855-3479

매일시장

📍 전라북도 익산시 중앙로3길 13

☎ 063-853-6666

서동시장

📍 익산시 중앙로3길 39-1

☎ 063-842-0063

익산 중앙·매일·서동시장은 한곳에 위치하고 있어 동일 상권을 이루고 있는 3개의 전통시장을 말한다. 통상 중매서시장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현대화된 아케이드를 따라 가운데 통로를 두고 마주하고 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일환으로 기존 전통시장에서 벗어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 중이어서 살거리는 물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다양하다.

상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패션쇼나 노래자랑은 기본, 지난 2017년에는 '야시시, 으시시, 배시시'라는 이름의 야시장이 열려 한여름 무더위를 전통시장에서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30여 가지의 다양한 먹거리가 줄을 이루고, 기본 20분은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다는 귀신의 집, 너도 나도 즐길 수 있는 고고장과 추억의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중매서 영화관, 그리고 익산을 담아낸 시장 갤러리, 프리마켓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오감만족을 이끌어냈다.

올해 역시 여름 무더위를 겨냥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6월중 개장을 앞두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고유의 인심과 정서는 물론, 다양한 체험으로 쓸쓸한 재미도 맛볼 수 있는 중매서시장에 한번 가보자.

익산시내관광
중·매·서시장





익산시내관광
원광대학교

원광대학교

전국에서 두번째로 아름다운 캠퍼스!!





익산을 대표하는 명문사학.

20만평이 넘는 넓은 교정, 일단 그 규모가 굉장하다.

전국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넓은 캠퍼스에 각종 나무와
꽃이 많아 교정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이 종종 이루어지기도
했다는~.

벚꽃 피는 봄이면 그 아름다움이 두 배!!

젊음과 활짝 만개한 벚꽃이 정말 잘 어울려 교정을 수놓는다.

사계절 어느 때든 청춘의 기운의 만발하지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봄을 맞이한 캠퍼스는 싱그러움이 가득 찬다.

익산지역 내에서도 손꼽히는 벚꽃 명소이기도 하고 벚꽃이
진 후에는 철쭉이 흐드러지게 핀다. 가을 단풍과 겨울 설경도
운치있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

교정 한가운데 자리한 인공호수 수덕호는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샷 포인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보는 순간 셔터 누르기가
바빠진다. 특히 저녁노을이 질 때의 분위기가 압권.

고고미술자료나 불고미술자료, 생활민속자료, 무속자료, 서화 및
탁본자료, 고문서 등 총 1만8,000여점의 소장품을 자랑하는
원광대학교 박물관도 이곳에 왔다면 꼭 둘러야 하는 코스.



익산시 익산대로 460

익산시내관광
원광대학교





삼삼오오 봄바람 휘날리며 걷는 여유 한가득

벤치에 앉아 봄 햇살 맞으며 책을 읽는 낭만, 시원한 생맥주 한잔을 내걸고 하는 농구 한 게임, 동아리 신입생 영입을 위한 치열한 눈치작전, 곳곳에 눈길을 사로잡는 버스킹 등. 이곳은 항상 생기가 가득한 봄이다.
벚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네가 와서 봄이다.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캠퍼스에 이런 공간이?
산책하기 좋은 도심 속 힐링 공간



동생아!
형아가 인생샷
찍어줄게!



1987년에 개원한 전북 유일의 사립수목원인 원광대 자연식물원은 10ha에 달하는 부지에 분류수목원, 유용식물원, 생태식물원, 4개 정원 및 온실 등이 조성돼 있다. 2,000여종 식물이 분포해 다양한 종류의 식생을 한 곳에서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사랑받아온 힐링 명소다.

다양한 식물과 수목이 종류별로 잘 정돈된 공간에 아늑한 산책로, 곳곳에 나무 벤치와 정자까지 있어 학생들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단체 소풍이나 유모차를 대동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도심 속 가까운 곳에 있는데다 주차도 편리하고 별도의 준비 없이도 여유와 낭만을 한껏 맛볼 수 있기 때문.

익산시내관광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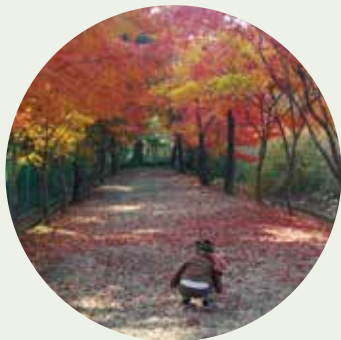
오늘은 내가
사진사!
엄마 아빠도 멋지게
찰칵~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준비하면 더할 나위 없는
자연카페가 되고, 도시락을 준비해 아이들 손을 잡고
간다면 자연 속 청량감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멋진
나들이가 된다. 연인끼리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마트폰이면 충분. 계절마다 자태를 뽐내는 꽃과
나무들을 벗 삼아 힐링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한번쯤 가봐야 하는 코스

-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9:00 ~ 17:00
-  동문개방(주말, 공휴일) / 정문개방(연중개방)
-  이용료 무료
-  063-850-5043
-  www.botanicalgarden.wnkwang.ac.kr



익산시내관광

원불교
익산성지

원불교익산성지

누구나 순례자가 되는 길.. '느리게 걷기'





익산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성지가 모여 있다.
그중 하나인 원불교 익산성지.

익산시 신용동에 위치한 원불교 익산성지에는 소태산 대종사가
세웠던 대각전을 비롯해 대종사 성탑과 성비 등 각종 사적과
유물자료 등이 있어 100여년 전 원불교 초기 교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넓은 잔디광장과 소나무 동산 등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차분한 안식처로 그만이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취해
걸다 보면 누구나 순례자가 된다.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내내 교도뿐만 아니라 방문객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이 포인트. 매년 4월 28일 대각개교절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소태산영화제나 법등축제 등을 함께 할 수 있어
금상첨화.

익산시내관광

원불교 익산성지

대각개교절을 맞이한 원불교 익산성지

평소에는 더할 나위 없이 차분한 분위기의 성지지만,

대각개교절 시즌이 되면 분위기 변신.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들과 법등, 그리고 실 새 없이 이어지는 발걸음들 덕에
한껏 축제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만 있다면, 어디를 배경으로 하든 멋진 포토존이 된다.





사색과 휴식의 공간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을 원한다면 추천.

도심 한복판 원광대학교 건너편에 자리한 원불교익산성지는

바로 길 건너 대학로와는 전혀 다른 여유를 가지고 있는 터.

넓은 잔디광장과 소나무 동산 등이 산책하기에 그만.



북부시장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익산 최고의 전통시장
가는 날이 장날 ^^





4일과 9일에 장이 열리는 북부시장은 익산은 물론 전북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전국에서도 성남 모란장 다음으로 큰 장이다. 그 규모만큼이나 살거리는 물론이고 볼거리도 다양하다. 굳이 장날이 아니어도 항상 북적이는 이곳은, 꼭 무엇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 사는 기분 좋은 향기를 맡고 싶다면 추천.

 익산시 인북로 259

 063-855-6891(북부시장 상인회)

익산시내관광
북부시장





할머니들이 용기종기 앓아 소쿠리에 한가득 풀어놓은 나물들이며,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과일들, 파라솔 아래 장사진을 치고 있는 각종 물건들,
일반 정육점에서는 보기 힘든 돼지머리와 특수부위,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는 즉석 김, 수산시장을 방불케 하는 어물전, 생선살을 치대
즉석에서 만드는 어묵, 갖가지 모양의 생과자, 매운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자장면, 호떡 등 사지도 않을 거면서 저절로 흥정을 하게 될 것만 같은 기분.
언제나처럼,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네 사람 사는 정이 넘치는 북부시장에서
오늘 저녁을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남부시장

기분 좋은 情을 담아가는 곳

한때 익산시 상권의 중심이었던 시장. 최고의 우시장과 포목점, 수산물, 건어물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이곳 남부시장에 와야만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이후 세월이 흐르고 시설도 낙후되면서 한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상인들이 의기투합해 예전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시장의 역사문화가 남아 있으면서도 시설현대화로 내·외부 모두 깔끔하게 변신을 마쳤고, 문화행사와 정기세일, 공동마케팅 등 주기적으로 행사를 실시해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살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100여대 주차가 가능해 편리하다.



📍 익산시 평동로11길 12

☎ 063-855-4798(남부시장 상인회)

익산시내관광
남부시장





이곳의 대표명물은 '깨동닭'. 한 번도 안 먹어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중독성 강한 인기메뉴다. 깨동닭 골목이 유명한 남부시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닭 튀기는 소리가 고소한 기름향과 곁들여져 그냥 지나치기 힘들 정도다. 나들이를 갈 때 전날 예약을 하고 이른 아침에 찾아가는 이들도 많다. 2017년 열린 깨동닭을 활용한 치맥축제는 놓치지 말아야 할 필수코스. 지난해에 '맥주를 마시면 치킨은 공짜'라는 슬로건으로 인기를 끌었던 치맥축제는 6월 한달간에 열렸다.

춘포역사

근대문화유산 춘포, 어디까지 가봤니?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

이제는 찾아오는 이들보다 떠나가는 이들이 더 많아 그 고유의 정취를 잃어가고 있는 많은 간이역들 중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이역이 바로 춘포역이다.

느릿느릿 구불구불한 철길을 달리던 춘포역(구 대장역)의 완행 열차는 이미 기억 속 저편 추억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춘포역은, 이제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

역사 앞 커다란 나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로터리, 아담한 크기의 역사와 기차역임을 알리는 팻말, 시민들을 위한 조형물과 포토존, 그리고 역사 안으로 미단이문을 열고 들어서면 역장 의복과 대장역 당시의 검정 교복, 초등생을 대상으로 해 진행한 현장체험 학습의 전시물들이 아기자기하게 전시돼 있다. 익산시와 (재)익산문화재단에서는 아프고 가슴 시린 이야기, 복적이며 살아왔던 사람 사는 이야기, 애뜻한 사랑 이야기 등 춘포역이 간직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공간에 녹여내 소중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공연과 도보드래킹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을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주저 말고 춘포로 떠나 보자.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현장. 도보트래킹

일제강점기 수탈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춘포 일대에서 이뤄지는 도보트래킹.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색체험 코스 연인간 이색데이트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춘포역에서부터 대장교회, 호소가와 농장, 만경강 길,

김성철 가옥(호소가와 농장 주임관사), 대장정미소를 지나 다시 춘포역으로.

아프지만 소중한 근대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춘포 일대에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향기로운 여행!



스토리가 있는
남부권



도심속 힐링공간

반나절 코스

원불교 익산성지

원광대학교·자연식물원



4대 종교성지 중 하나인 원불교 익산성지는 그 특유의 고즈넉함과 여유로움이 방문객들을 배려하며, 넓은 잔디광장과 소나무 동산 등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차분한 안식처로 그만.

분위기에 취해 걷다 보면 누구나 순례자가 되는 느낌.

길 건너편에는 삼삼오오 생기발랄한 청춘들이 한창이다. 그들을 품고 있는 원광대학교 캠퍼스 안에는 자연식물원(수목원)이 있는데, 사계절 가지각색의 꽃과 나무들이 청춘들은 물론 익산시민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 연인들은 물론이고 도시락을 가지고 가벼운 나들이에 나선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 성지에서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고, 자연식물원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예쁜 꽃과 나무를 카메라에 담자.



익산 근대문화유산 투어

반나절 코스



익산 최고의 변화가였던 영정통과 도시재생으로 변신을 기대하고 있는 원도심,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춘포역사를 통해 익산의 과거·현재·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반나절 코스 부담 없이 도심권에서 가볼만한 곳을 찾는다면 익산역 앞 익산문화예술의거리가 단연 1등. 특히 서울에서 1시간이면 충분한 KTX 익산역을 통해 기차여행을 하고 있다면 안성맞춤.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주말이라면 금상첨화.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간이역인 춘포역으로 발걸음을 옮겨 보자.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고스란히 머금고 있는 춘포역은, 이제 역사문화공간으로서 새롭게 탈바꿈을 하고 있다. 그 옛날 출퇴근마다 복적이던 기차역의 사람 사는 향기를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일제강점기 농장 등 근대문화유산을 둘러보는 도보트래킹은 가족·연인 누구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인기 아이템이니 놓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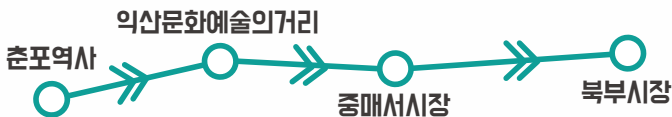
하루코스

익산 근대문화유산 투어



아직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절 농장 등 춘포 일대의 근대문화유산과 익산역 앞 익산문화예술의거리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일대에 산재해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코스다. 춘포역사를 둘러보고 만경강 뚝방길을 거닐며 여유를 한껏 맛보자.

여유를 만끽하며 근대역사와 문화를 담았다면, 술술 출출한 시간! 고소한 치킨과 시원한 생맥주, 깨통닭 골목으로 유명한 남부시장에서 치맥을 강력 추천. 이제 극장이나 양장점, 보석상 대신 작은 공방이나 화실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나, 곳곳을 둘러보며 아기자기한 맛을 느껴볼 수 있다. 거리 내에 있는 익산문화재단, 익산아트센터 창작스튜디오 등도 한번쯤 둘러볼만한 포인트.



먼저 춘포역사에서 근대문화유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트래킹을 하고, 익산문화예술거리에서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겨보자.

곳곳의 아기자기한 조형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서울 인사동이나 연남동이 부럽지 않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맛볼 수 있는 매일·중앙·서동시장은 한곳에 모여 동일 상권을 이루고 있으며 한여름 야시장이 열리는 시즌에 맞추면 금상첨화!!

이번에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익산 최고의 전통시장인 북부시장에 가 보자.

가는 날이 장날이다. 4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장이 열리지만, 장날이 아니어도 인심은 예전 그대로다. 없는 것만 빼고는 전부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다면 흥정에 나서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

인심 좋은 국밥 한그릇으로 끼니를 때우고 부족하다면 매운 맛이 일품인 시장호떡을 추천. 북적이는 시장을 벗어나면 오후의 여유를 보내고 여정을 마무리하자.

